

쇼트트랙+빙속 '퓨전기술'로 성공시대 활짝

이승훈·이상화 쇼트서 배운 코너링, 곡선주로서 쾌속 질주

‘한국의 쇼트트랙 1세대는 대부분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출신이었지만 이제는 쇼트트랙에서 스피드로 전향해 성공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1만m에서 금메달 패거리를 이룬 이승훈은 쇼트트랙 선수 출신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4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하고 나서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꾼 지 1년도 되지 않아 얻은 대단한 성적이다.

특히 이승훈은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3관왕에 빛나는 안현수(성남시청)와 현재 대표팀 ‘만행’인 이호석(고양시청)의 벽을 넘지 못하고 10년 넘게 해왔던 쇼트트랙 선수 생활을 접고 새로운 도전에서 성공시대를 열었기에 의미가 더욱 크다.

쇼트트랙에서 스피드스케이팅으로 바뀌어 성공한 사례는 이승훈 말고도 ‘단거리 빙속 여왕’으로 떠오른 이상화(21·한국체대)도 있다.

이상화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쇼트트랙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으나 5학년 때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전향해 두각을 드러낸 사례다.

레이스 중 선수 간 몸싸움이 싫어 기록으로 승부를 가리는 스피드로 옮긴 이상화는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인 끝에 여자 단거리 부문 최고의 스프린터로 성장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쇼트트랙을 이끌었던 1세대들이 스피드 선수 출신이라는 걸 보면 크게 달라진 풍경이다.

쇼트트랙이 동계올림픽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1988년 캐나다 캘거리 대회 때 1천 500m와 3천m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딴 김기훈(현재 남자대표팀 코치)과 이준호는 모두 스피드 선수였다.

김기훈은 1992년 알베르빌 대회 때 2관왕(1천m, 5천m 계주)에 올랐고 1994년 릴레함메르 대회에선 1천m에서 2연패를 달성했다. 이준호도 알베르빌 대회 계주 금메달과 1천m 동메달로 한국 쇼트트랙의 전성기를 열어줬었다.

이후 20여년의 세월이 흘렀고 한국은 ‘쇼트트랙 강국’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국내 대표 선발전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상황이 됐고 이 때문에 쇼트트랙 선수들의 스피드 종목 전향은 더는 놀라운 일이 아니게 됐다.

쇼트트랙에서 기본기를 충실히 익혀 활주 능력과 코너링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스피드 선수로서도 빨리 적응할 수 있고 특히 순발력과 곡선 주로 스피드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어서다.

한국선수단 주요경기 일정

〈25일〉 ◇ 쇼트트랙 = 남자 500m 예선, 여자 1천m 예선, 여자 3천m 계주 결선(오전 10시~오전 11시45분)
〈26일〉 ◇ 피겨스케이팅 =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오전 10시~오후 2시)

크라머, 코스 착각 실격 이승훈 ‘행운의 금’

‘야생마’ 이승훈(22·한국체대)이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1만m 금메달리스트가 된 데에는 행운도 따랐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스벤 크라머(네덜란드)가 레이싱 도중 레인을 제대로 교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됐기 때문이다.

크라머는 이승훈보다 4.05초 앞선 12분54초50만에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8바퀴를 남겨 둔 상황에서 진입할 때 위치를 헛갈려 아웃코스스로 들어가려다 황급히 인코스스로 자리를 바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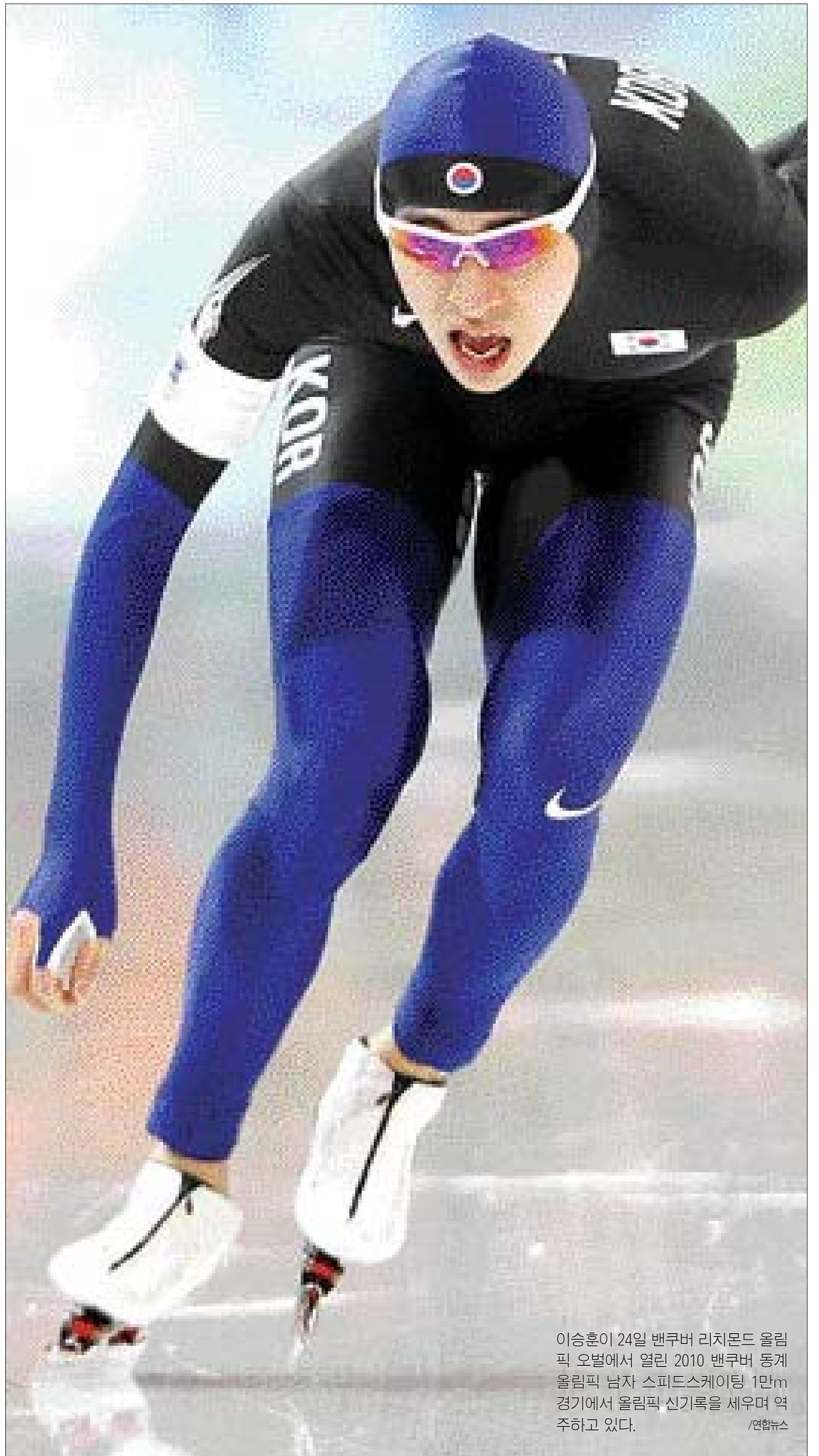
하지만 원래 들어가야 했던 자리는 아웃코스였기 때문에 크라머는 인코스를 두 번 탔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됐다.

그렇다면 크라머가 제대로 아웃코스를 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기록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인코스스로 돌아 이승훈보다 4.05초 빨리 끝난 크라머가 아웃코스스로 풀었다 해서 기록상으로 이승훈보다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권 광주시빙상경기연맹 전무이사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선수 별로 기량 차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을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록에 큰 차이는 없으며 대략 1~2초 차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크라머가 인코스를 타는 것이 맞았다 하더라도 실격 처리되게 된 충분했다. 코너 입구에는 인코스과 아웃코스를 나누는 고깔 모양의 표지가 있는데, 이 표지 이후부터는 선수의 몸이 다른 코스로 넘어가면 실격이다.



이승훈이 24일 밴쿠버 리치몬드 올림픽 오벌에서 열린 2010 밴쿠버 동계 올림픽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1만m 경기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역주하고 있다.

■ 쇼트 1위 김연아

‘피겨여신’ 김연아(20·고려대)는 실력만큼이나 말솜씨도 자신감 넘치며 푹 부러졌다.

24일(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 퍼시픽콜리세움에서 열린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쇼트프로그램에서 역대 최고점인 78.50점을 받아 1위로 나선 김연아는 “열심히 준비한 만큼 똑같이 잘 할 자신이 있었다. 준비했던 것을 오늘 다 보여 줄 수 있어서 기쁘다”며 미소를 지었다.

김연아는 쇼트프로그램 최고점을 세웠지만 강력한 라이벌 아사다 마오(일본·73.78점)와는 불과 4.72점 차이 뿐이다. 그만큼 아

“열심히 준비한 만큼 금 자신있다”

사다도 좋은 연기를 펼친 셈이다.

김연아는 사실상 메달 색깔을 가리는 26일 프리프로그램 전망에 대해 “지금이 최고의 컨디션이다”라고 밝힌 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은 각오를 보였다.

다음은 김연아와 일문일담.

-오늘 밤은 잠수에 만족하는가?
▲잠수 보다는 오늘 준비했던 것을 다 보여줄 수 있어서 기쁘다. 올림픽에서 좋은 연기를 보였고 잘 끝내서 기쁘다.

-바로 앞에서 연기한 아사다 마오의 점수가 높았는데 부담은 없었나?
▲아사다 경기는 완벽했다. 앞의 선수 경기를 안보고 안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큰 부담은 없었다.

-프리스케이팅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토에서나 여기서나 아주 준비를 많이 했고 컨디션도 좋다. 열심히 했으니 진짜 자신이 있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프리스케이팅을) 준비하겠다.

■ 빙속 1만m 금 이승훈

“올림픽 신기록을 세운 것도 기적인데 크라머까지 실격되다니...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종목에 혜성같이 등장한 이승훈(22·한국체대)이 5천m 은메달에 이어 1만m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진정한 ‘장거리 썬피어’의 자리에 올랐다.

다음은 이승훈과 일문일담.

-금메달 확정되던 순간의 느낌은.
▲짜릿했다.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다. 2위였다가 금메달로 바뀌는 순간 제정신이 아니었다. 꽃다발 세리머니를 할 때 은·동메달 선수가 가마를

“올림픽 신기록 정말 기적 같다”

태워줬다. 굉장한 영광이었다.

-유럽 선수들을 제칠 수 있었던 비결은.
▲유럽 선수들은 다리 길이가 길어서 따라가기 쉽지 않다. 그렇수록 자세를 많이 낮춰야 하는데 체력적 부담이 크다. 그래서 체력을 기르려고 스피드 지구력 훈련에 열중했다.

-크라머의 실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전혀 모르고 있다가 크라머가 경기하던

도중 감독님이 ‘크라머가 실수한 것 같다’라는 말을 해주셨다. 크라머가 코스를 제대로 바꾸지 못했다. 그이후부터 모두 잘못 탄 셈

이 됐다. 그런 실수는 좀처럼 나오기 힘들다. 아직 한 번도 못 봤다.

-좋은 꿈을 봤나.
▲아무 꿈도 꾸지 않았다. 잠은 잘 잤다. 5천m 경기를 할 때 아버님이 ‘금메달을 눈앞에서 잡지 못한 꿈을 꿴다’라고 하셨다.(웃음)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의 차이는.
▲쇼트트랙을 타면 재미가 있다. 레이스를 펼치면서 없는 공간을 찾아들어 가는 재미가 쏠쏠하다. 하지만 스피드스케이팅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다.

이제 쇼트트랙을 타면 재미가 있다. 레이스를 펼치면서 없는 공간을 찾아들어 가는 재미가 쏠쏠하다. 하지만 스피드스케이팅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다.